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HEALTHCARE SYSTEM



나눔의 기쁨이 샘솟는 ~
오아시스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Gangnam Center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사회봉사단 오아시스 VOLUNTEERS OASIS _ 제 3호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GANGNAM CENTER

2011.2월

안산 외국인근로자 진료 | *Medical services for foreign workers*



1. 외국인 근로자의 채혈검사 시행모습
2. 무상으로 약품조제가 이루어지는 약국 모습
3. 바쁜 일정에도 환자의 이야기를 세심하게 듣는 원장님



오아시스¹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매월 첫째 주 일요일마다 40~50여명의 강남센터 교직원, 도움을 주시는 타 의료기관의 직원들 그리고 의료통역사들과 함께 의료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노동자에게 이동장비차량을 이요한 진료 상담 및 각종 검사를 시행합니다. 안산 외국인 복지센터에서 매월 25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방문하여 평일에는 고된 업무로 접하기 어려운 x-ray, 혈액검사, 초음파, 심전도를 포함한 검사를 받고 진료 후 처방된 약품을 받아 들고 집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2010년부터는 단순히 일회성 진료에 그치지 않고 유소견을 보이는 경우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를 주선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봄, 심근경색이 의심되는 증상의 환자에게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사회사업실 도움으로 정밀 검사를 받도록 했으며, 관상동맥조영술과 스텐트 삽입 수술을 받고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약물치료 중입니다. 간암이 의심되었던 환자 역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사회사업실 도움으로 2차 진료를 받을 수 있었고 다행히 치료가 필요 없는 간 낭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녹막염이 발견된 러시아인 환자는 도티병원(마리아수녀회) 도움으로 녹막삼출액 천자 치료 후 건강하게 퇴원하였습니다.

사회봉사단 오아시스는
2008년 7월부터 경기도 안산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무료 진료활동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4



5

외국인 근로자들은 주중에 의료진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 때문인지 오아시스 진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한결 밝습니다. 이들에게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어 쉬는 날에도 봉사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6

- 4.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전 자궁경부암 및 예방과 관련한 건강강화를 진행하시는 임선희 교수님
- 5.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구강건강을 위한 치과진료
- 6. 옷은 얼굴로 진료하시는 양종인 교수님
- 7.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시는 전우기 교수님
- 8. 안산진료 후 다같이 모여 아자아자!



7



8

안산 외국인근로자 진료 | 봉사후기



봉사활동 후기 1

행복한 선물을 받으러 가는 날

우리나라의 겨울이 삼한사온이라고 그랬던가요? 이번 겨울은 냉기로 코끝이 찡해지는 날이 유난스럽게도 오래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한을 지낸 1월의 두 번째 일요일. 오늘도 기온은 마냥 냉랭하지만 시린 몸을 따스한 마음 속 온기로 녹일 수 있는 오아시스의 새해 첫 안산진료봉사가 있는 날입니다. 안산외국인진료소와 인연을 맺고 진료에 따라 나선 게 지난 해 6월이었는데 어느새 새 다섯 번째 방문이 되었습니다. 여느 일요일 이라면 마냥 게으름을 부릴 수도 있지만 봉사활동이 예정되어 있는 날이면 괜히 설레기도 하면서 전날부터 마음을 다잡게 되곤 합니다. 부지런히 준비를 하고 아직은 조용한 아파트 단지를 걸어 내려 오며 의미 있는 하루의 시작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단체 이동 버스에 몸을 싣고 눈 덮인 창밖 풍경을 따라다 보니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는 익숙한 진료소 건물이 눈에 들어옵니다. 근처 식당에서 일요일 치고는 이른 점심식사를 하고 미리 접수된 차트를 살펴보며 진료 준비를 합니다. 지난 달에 치료를 하고 다시 봐야 하는 분이 접수가 되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반갑고 그간의 경과가 궁금해 지는데, 마침 제일 위에 놓인 차트의 주인이 그런 분이십니다. 지난번엔 충치가 깊어서 마무리를 하지 못한 채 임시 치료만 하고 가셨기에 혹 아프거나 불편하지는 않았을 지 걱정이 되기도 했었는데, 잊지 않고 일찌감치 접수를 하고 시작 시간을 기다리는 환자가 고맙게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진료가 시작되었고, 다행히 그 환자의 상태는 양호해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충전 치료를 마치고 나니 환자는 환한 얼굴로 고맙다는 인사를 남기며 진료실 문을 나갑니다. 내게도 조그만 행복이 쌓이는 순간입니다.

이제 안산에서의 하루는 검진을 주로 하는 센터의 일과에서 벗어나 직접 치아를 치료 하는 작업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과도 같은 일상이 되어 갑니다. 사실 이곳 진료소의 치과진료실은 일반 치과의원에 비해 부족한 것이 없을 만큼 꽤 괜찮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 무의촌 봉사 경험이나 이동 진료장비를 가지고 가야 하는 영월봉사에 비하면 이곳의 치과진료 여건은 봉사진료를 하는 입장에서는 황송하기 까지 해서, 저절로 잘 하고픈 의욕을 불러 일으키기까지 합니다.

1	2	3
---	---	---

1. 체혈순서를 기다리는 안산 외국인근로자들
2. 손목 x-ray 촬영이 이루어지는 이동진료차량 안
3. 통역을 도와주는 외국인 친구와 진료하시는 최승호 교수님





그러나 잘 갖추어진 시설과는 달리 이곳을 방문하는 환자들의 상태는 보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의료의 사각지대에서 평소 보험적용이 되는 치과진료조차도 받기 어려운 여건이다 보니, 치아가 많이 상한 다음에 어렵게 찾아온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막상 진료에 임하다 보면 어디까지 어떻게 해 드리는 게 최선의 선택일지 고민도 하게 됩니다. 가능하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어드리고 싶은데, 어느 정도는 진료시간이 필요한 치과 치료의 특성상 하루에 돌보아 드릴 수 있는 인원엔 많은 제한이 있다는 점 또한 마음에 걸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비록 미약한 도움일지라도 작은 손길에서 고통을 덜고 위안을 느끼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의 진료는 분명 의미 있는 것이 아닐런지요?

컴프레서와 석션의 소음 속에서 한 분 한 분 진료를 하다 보니 짧은 겨울 해가 어느덧 꼬리를 감추고 소란했던 대기실도 조용해집니다. 오후 내 부산했던 진료실을 정리하고 다음 달을 기억하며 뿌듯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버스에 몸을 싣습니다. 혼자서는 하기 어려운 일하기에 늘 옆에서 성심껏 도와주는 우리 치위생사들이 있어 고맙고, 일요일 나 혼자만의 외출임에도 나의 일을 지지해 주는 든든한 가족이 있어 감사한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교수 김화자



봉사활동 후기②

받는사람보다 하는 사람이 더 행복한 일

오아시스 의료봉사 단체를 만나기 전까지 나에게 봉사란 참 어색하기만 했다.

처음으로 오아시스에 참가하는 화창한 일요일 오후.. 안산 외국인 노동자 주민센터 입구는 의료봉사자들의 손길을 기다리는 외국인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어 입구를 찾기도 참 힘들었지만, 용기를 내어 운동치료실 문에 들어섰다. 외국인들은 몸이 성한 부위가 한군데도 없었고, 이런 몸상태로 그동안 어떻게 생활을 해왔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오아시스 의료봉사단

마지막 전까지 나에게 봉사란 참 어색하기만 했다.

처음으로 오아시스에 참가하는 화창한 일요일 오후.. 안산 외국인 노동자 주민센터 입구는 의료봉사자들의 손길을 기다리는 외국인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어 입구를 찾기도 참 힘들었지만, 용기를 내어 운동치료실 문에 들어섰다. 외국인들은 몸이 성한 부위가 한군데도 없었고, 이런 몸상태로 그동안 어떻게 생활을 해왔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신체적 불편한 상태로 있을 땐 내가 힘이 나게 되고, 잊었던 중대한 생각이 강박했다. 또한, 불행이란 내게만 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겪고 있는 것. 또한 내가 가진 약점도 그들의 눈빛을 보며 그 어떤 것에도 반한 수 없을 만큼 보람을 느꼈다.

봉사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 더 강해지라는 말이 아주 작은 의미가 된다.

내 마음을 이젠 좋은 기쁨을 나누는 것
서울대학교병원 간호사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Wellness company 김명진

신처럼 손끝만 스쳐도 아픈 부위가 치료되는 능력이 나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했다. 또한 부족하지만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여 주고, 동작 하나 놓치지 않으려는 그분들의 눈빛을 보면서 그 어떤 것에도 반한 수 없을 만큼 보람을 느꼈다.

봉사란 받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는 말이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된다. 마지막으로 이런 좋은 기회를 허락해 주신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선생님들과 운영진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운동치방사 김명진

감사의 편지 | Thank you



안녕하세요...

소리랑카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1남 1녀의 엄마 아이다입니다.
작년 서울대학 교병원 강남센터에서 실시한 자궁암 예방주사
수혜를 받고 힘으로 감사한 마음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타국 생활의 고단함으로 자칫 소홀할 수 밖에 없는
건강 검진. 특히 여성으로서 꼭 필요한 자궁암 예방에
필수적인 조치를 받게 되어 참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저와 같은 이주여성들 위해 많은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리랑카. 아이다. 도림



선생님들께 감사 편지 드립니다.
사람에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나면 타국에서
될 때문에 혹은 결혼을 하여 온 외국인들
에게 자신들의 몸처럼 섬김껏 돌봐주시고
걱정해 주신 것에 대해 외국인의 한 사람으로
감사로 드립니다.

월요일엔 외국인들을 상대로 한달에 한번씩 무료
건강 검진을 해주시는 선생님들의 수고와 고마움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할 드립니다.
선생님들의 상냥함과 친절함으로 외국인들을
내 가족처럼, 형제 자매처럼 건강을 보살피
주시는 많은 외국인들은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항상 수고하시고.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즈베키스탄 열레나 드린



(안녕하세요), 한국(대학과 외과과 일가를 둔
준학교 3학년 사니입니다.

작년, 엄마와 함께 서울대병원 강남센터에서 실시한
자궁암 예방주사의 혜택을 받았습니.

다직은 여기서 모르지만 여성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라 믿었습니다.

넘쳐나지 않은 행복에 무릎 꿇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같은 다문화 가정의 위해 도와 주시는 한국의 많은 이웃에게 감사드립니다

내가 받은 만큼의 사랑을 여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1. 1. 13 -

사니준경

안산시와 의료 협약 체결 | *Contract*



1,2. 안산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안산시와 협약 체결
(2010년 12월 13일(월) 강남파이낸스센터 대회의실)



안산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 위한 협약 체결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원장 조상헌)는 지난 2010년 12월 13일(월) 강남파이낸스센터 39층 대회의실에서 안산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의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히며 안산시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은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인 안산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해 안산시와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가 무료진료를 시행하고, 질환 의심 유 소견 환자에 대한 진료 지원 및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월 200여명에 이르는 외국인 근로자의 질환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운동처방사 및 물리치료사와 함께하여 생활습관병을 예방하기 위한 운동법을 제시하는 등, 질병 치료뿐 아니라 건강증진까지 돕는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닙니다. 조상헌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원장은 “그 동안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사회봉사단이 안산 외국인근로자 진료를 통해 얻은 소중한 경험과 가치들은 오히려 안산 외국인 근로자들로부터 받은 커다란 선물이었다.”며 “이러한 경험과 가치들을 바탕으로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는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에 대한 시선을 거두지 않을 것이며,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부탁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영월군 순화무료진료 | *Medical services at Yeongwol*



1. 강당 가득 메운 진료실 풍경
2. 진료하시는 박효은 교수님과 집중하여 설명을 들으시는 어르신



강남센터 의료·사회봉사단 오아시스는 봄 정기 무료순화진료 활동으로 3월 26일(토)부터 27일(일)까지, 가을 정기 무료 순화진료 활동으로 8월 27일(토)부터 28일(일)까지 1박 2일간 강원도 영월군을 찾았습니다. 봄에는 남면읍, 가을에는 김삿갓 마을을 방문하였습니다. 조상헌 단장을 비롯한 교수 15 여명과 직원 40명, 직원 가족,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의료사회사업실, 서울의대간호대 카톨릭학생회 등이 함께한 60여명의 봉사단은 총 200여명의 주민들을 진료하였습니다. 내과, 가정의학과, 부인과, 치과, 안과, 영상의학과 등 7개과의 다양한 진료가 원활히 이루어졌으며, X-ray, 심전도, 초음파 등의 장비가 탑재된 의료장비 버스가 동원되었습니다.

사회봉사단 오아시스는 2007년 6월부터 강원도 영월군 주민들을 위한 무료 진료활동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3



4



5

- 3. 다음 진료장소를 알려주는 이현주 선생님
- 4. 어르신들의 증상을 듣고 계신 부원장님
- 5. 소아발달장애와 싸우고 있는 어린이
- 6. 안과진료를 위해 일부러 찾아와주신 서종모 교수님
- 7. 영월 순회진료가 끝난 후 다같이 찰칵

2007년 자매결연 협약 이후 오아시스는 매년 2회에 걸쳐 영월군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있으며, 환자들에게 꼭 필요하지만 일반적으로 무료 진료에서 하기 어려운 X선 촬영과 초음파 검사 등 영상검사, 치과나 안과 진료까지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순회 진료에서는 KBS프로그램 "동행" 촬영 팀과 함께 소아발달장애를 겪고 있는 어린이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50여년 간 목에 커다란 종양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어려운 경제사정 때문에 제대로 된 검사나 치료를 받지 못했던 주민과, 폐암 의심소견이 발견된 주민을 대상으로 병원 진료를 연계해 주었습니다. 목의 종양을 지닌 환자분의 경우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종양제거 수술을 받았으며, 폐암 의심소견이 발견된 환자분은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를 방문하여 정밀 검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7

영월군 진료 Yeongwol | 봉사후기



봉사활동 후기 1

강원도 영월 순화무료진료 1박2일을 다녀와서..

업무가 끝나고 오후5시쯤 출발하는 영월 행 버스안. 영화 한 편을 느긋하게 감상하고 잠서 졸다 눈을 뜨면 벌써 어둑어둑해진다. 상쾌한 공기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푸짐한 음식들이 우리가 영월에 도착했다는 것을 알려준다.

강남센터에 입사하기 전에는 영월에 가 본 일이 없었다. 2007년 이후로 매년 한 번씩은 방문하게 되는 영월. 올 해도 어김없이 찾아간 그곳에서는 전에 살던 동네에 가게 되면 느낄 법한 반가운 기분이 든다.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모두들 분주하게 움직여 진료장소로 갔다. 벌써부터 우리보다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계신 어르신들도 많다.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당신들 손주 보듯이 좋아하시고 주말에 이렇게 먼 데까지 왔다며 그저 고맙다하시는 분들 보면 과분한 대접받는 것 같아 민망하기도 하다. 주말도 없이 땀별에서 발일 하다 오신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손에 이끌려와서 채혈 한 번에 엉엉 우는 아이... 그 래도 많이들 오셨던 것 같아 뿌듯했다.

미리부터 준비하고 진행했던 봉사단 선생님들, 진료보신 교수님들, 곳곳에서 안내했던 여러 선생님들, 검사 맡았던 선생님들... 여러 손길들이 모여 의미 있는 수고를 한 덕에 영월 주민 분들도, 우리도, 다 같이 기분 좋은 주말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다.

사랑의 가장 좋은 표현은 시간의 투자라 했다. 하루 정도의 투자, 이 정도면 해 볼만 하지 않은가.



헬스팀 이경아



홍천초 5학년 강응재



홍천초 2학년 강응조



봉사활동 후기②

장윤후 학생의 영월 봉사 활동 후기

평소에 봉사, 봉사 이야기만 들어왔던 일을 내가 하게 됐을 때 느낌은 그저 생소했다. 막연히 봉사하는 사람들은 훌륭하다, 아나도 언젠간 저런 걸 해봐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멀게만 느껴졌던 봉사활동의 기회가 생각보다 빨리 내게 주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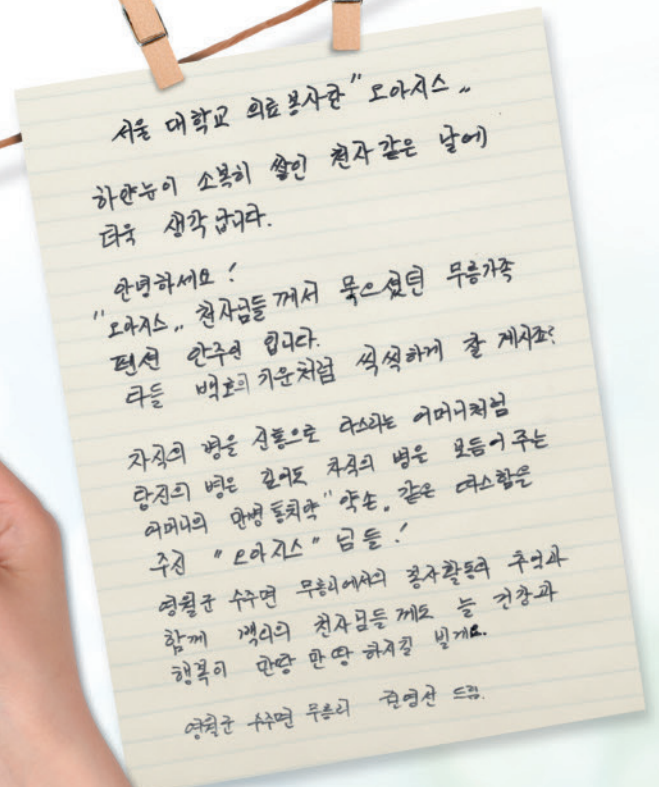
영월 봉사 활동은 서울대학교 병원 강남 센터 분들에게서 영월에 가서서, 무료로 진료와 처방을 해주는 활동이었다. 아이들은 두 팀으로 나누어 한 팀은 어르신들의 집안 정리를 거들었고 다른 한 팀은 나를 포함한 중학생 3명이 마을회관 앞에서 약 처방을 도왔다. 엄마와 다른 어른들께서는 능숙하셨는데 많은 봉사활동 경험이 있으셔서 그렇다는 생각을 하고 보니 나는 왜 엄마의 봉사활동 경험담을 항상 접하면서도 봉사활동을 갈 생각은 하지 않고 집에서 빈둥거렸나 싶어 회의감이 들기도 했다.

어르신들이 들어오시고, 약 처방을 돕게 되었다. 나이가 많아 봤자 중학교 3학년인 아이들에게서는 전문지식을 기대하기가 어려워 우리가 약 처방에서 도왔던 일은 처방전에 이름쓰기, 약 하나를 두 동강 내기, 약 봉지 봉합하기, 약 봉지 투약기에 끼워 넣기였다. 약 처방을 하면서 봉사에 참여한 아이들은 뛰어난 팀워크를 보여주었다. 그런 탓에, 약을 너무 많이 찍어 죄송한 마음이 든 것도 사실이다.

영월 봉사 활동을 하면서 혼자 많은 생각을 했다. 첫 번째로 든 생각은, 나는 나 자신이 다른 사람을 많이 배려하는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었다. 내가 속한 학교, 학원 속에서 친구들의 말을 깊이 듣고, 도와주려고 노력하면서 나 스스로 난 참 배려심 깊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진실이 아니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이, 진정한 배려심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두 번째로 든 생각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 행위는 몸이 지칠지언정 마음은 지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솔직히 이 봉사활동에서 내가 몸이 지치지 않았지만, 약간 피곤한 건 사실이었다. 그에 비해 마음은 계속 뭔가를 더 하고 싶어했고, 일을 시작한 처음보다 더 밝아져 있었다. 두 가지 생각을 하게 해준 내 생애 최초의 봉사활동에 나는 만족하고, 감사한다.

송파중학교 장윤후



독거노인 목욕봉사 | Bath services for the elders



1. 목욕이 끝나고 우리를 꼬옥 끌어안아주시던 할머니
2. 반가운 마음에 한 걸음 앞서 걸어나가시던 할머니

강남센터 오아시스[®]는 홀로 사시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격월로 목욕봉사를 제공합니다. 모처럼 근무하지 않는 토요일이지만 늦잠의 유혹을 떨치고 종로구 노인복지회관으로 향합니다. 모두가 어르신들께 목욕을 시켜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종플루를 비롯한 전염성 질환에 취약하신 어르신들이기에, 체온테스트에 통과한 직원들만이 어르신들을 모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20여분을 모셔와 조금은 부스스해진 머리를 깎아드리고, 따뜻한 목욕물로 구석구석 씻겨드린 후 새 속옷을 입혀드렸습니다. 비록 몸은 흠뻑 젖었지만, 마음만은 따뜻해집니다. 할머니들께서 단순히 목욕하는 날이라기 보다 귀여운 손주손녀를 만나는 양 한껏 들떠서 이야기 보따리를 술술 풀어나가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험후기 1

천사같은 우리 아들딸,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세상에서 제일 예뻐~” 어르신이 손을 치켜세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몇 번이고 감사의 마음을 전달해주십니다. 오늘은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와 함께 한 날입니다.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는 복지관이 개관한 2007년부터 한 번도 거르지 않고 2달에 한 번씩 복지관의 저소득 거동불편 어르신들의 목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항상 웃는 고운 얼굴로 어르신들을 집까지 모시러 직접 가고, 찹찹하게 목욕시켜드리는 것을 보면 어느 아들딸, 손자손녀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봉사 때마다 어르신들을 목욕시켜드리고 수발해주다보니, 이미 어르신들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르신들은 한 주라도 늦거나 못 오면 걱정스러워 하시고, 만날 때마다 이산가족을 상봉한 마냥 반가워하시니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봉사자들도 오늘 발걸음이 너무나 가볍다고 감사를 전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는 주변 어르신들께서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시고, 봉사를 받으시는 어르신들은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지만 멋진 우리 봉사자 아들 딸 덕분에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봉사는 것이 사실 실천하기 어려운 것인데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직원들을 보면 매번 어떻게 이리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지 의아해집니다.

다른 곳에서도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다보면 백의의 천사들이 바로 이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어르신 곁에서 누구보다 힘이 되어주는 우리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언제까지나 우리의 아들딸로 함께 해주세요!

사회복지사 공영중



체험후기 2

독거노인 목욕봉사를 다녀와서 -

2달에 한 번 가는 종로노인복지관, 언제부턴가 이날을 기다리게 된다.

너무나 반겨 주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할머니들이 오시기 때문이다. 보잘것없는 내가 여기서는 스타가 된 기분이다. 잘 숙독한 때타올을 챙겨 복지관으로 향할 때... 할머니들 얼굴이 한분 한분을 떠올린다.

늘 제일 먼저 오셔서 예약하시는 할머니, 중풍수술을 하신지 얼마 되지 않아 몸이 불편해 할아버지 손을 잡고 오셔서 눈으로 인사하시는 뚱뚱이 할머니, 너무 때를 밀어 빨갛게 되었는데도 괜찮으시다며 계속 밀라는 왕갈꿈이 할머니... 매번 오셨다가 한번 빠져서 가슴을 철렁하게 만든 93세 소녀 할머니도 오늘은 오시겠지? 하다보면 복지관에 도착한다. 열악한 목욕탕 시설임에도 불편하신 몸으로 건강한 나에게 맘 써주시는 할머니들이 안쓰러워 눈물이 나기도 한다.

사실 봉사를 했다고 하지만, 끝나고 나면 내가 몇 배 더 봉사를 받고 가는 기분이 된다. 할머니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사랑과 정을 듬뿍 받고 인생을 배우고 돌아오기 때문이다.

케어팀 장순복



- 3 사위를 마치고 방긋 웃으시던 어르신들
- 4 할머니 소지품을 챙겨드리는 모습
- 5 수건으로 꼼꼼히 머리를 털어 말려드리는 모습
- 6 헤어 감기 걸리실까 따스한 드라이 바람으로 말려드리기



강남구 순회무료진료 | *Medical services at Gangnam gu*



1. 채혈검사 후 반창고를 장성껏 붙여드리는 모습
2. 신경정신과 진료를 담당하셨던 윤대현 교수님



강남센터 의료·사회봉사단 오아시스는 오아시스는 여름 정기 무료순회진료 활동으로 6월 12일(토) 강남구 하상장애인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조상헌 단장을 비롯한 교수 15명과 직원 36명, 직원가족 등이 함께한 60여명의 봉사단은 총 250여명의 기초수급대상자들을 진료하였습니다. 이번 무료건강검진은 관내 독거 어르신, 중증 장애인 등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질병 조기 진단과 질병 예방에 대한 교육을 제공,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는 취지로 시행되었습니다.

사회봉사단 오아시스는 2007년 6월부터
강남구 주민들을 위한 무료 진료활동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 3. 불편하신 사항을 조심스레 듣는 접수창구
- 4. 치과치료 중이신 이은희 교수님
- 5. 하나라도 빠질세라 검체를 확인하는 모습
- 6. 휠체어에 앉아계신 할머니를 진찰하시는 원장님
- 7. 진료 후 단체사진 한 컷

오아시스의 무료건강검진 외에도 '신한은행 강동본부 캠프스', '금융감독원', '골프존' 등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참석, 친절환 안내와 진입로 물기 제거 작업 등을 담당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복지관의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이동이 어려우신 분들을 차로 모셔와 많은 이들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실시된 무료 건강검진에는 강남구 디딤돌 사업을 함께하고 있는 노인종합사회복지관 등 총 13개 거점기관에서 대상자 신청을 미리 받아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내과, 안과, 통증치료, 치과, 신경과, 영상 의학과 등 다양한 진료가 원활히 이루어졌으며, X-ray, 심전도, 초음파 등의 장비가 탑재된 의료장비 버스가 동원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이웃 디딤돌 사업 | *Medical services at Gangnam gu*



고마워요,
각종 도움이 있었는데요
고맙습니다



1. 다음 장소로 이동하기 전 차트를 세심히 읽어보는 모습
2. 진료 중이신 오승원 교수님
3. 후두가 부었을까 펜라이트를 비춰 살펴보는 김선신 교수님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는 지난 2009년 12월 강남구가 주관하는 『아름다운 이웃 디딤돌 사업』에 참가하여 강남구의 소외된 이웃과 차상위계층을 위한 의료지원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2일(목) 오후 2시 강남구청에서 강남센터를 비롯한 92여개 타 후원업체 대표들에게 감사패 수여식이 이루어졌습니다. 디딤돌 사업의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영화배우 박은혜씨가 함께 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이웃, 서울 디딤돌

나누는 이웃, 희망찬 서울공동체

서울시복지재단 *Hi! Seoul*
SOUL OF ASIA



『아름다운 이웃 디딤돌 사업』은 지역내의 학원, 병·의원, 기업체, 상점 등이 자율적으로 기부(물품, 서비스)에 참여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 도움을 받은 이웃은 상점을 칭찬하고 홍보해 지역사회를 '나눔 공동체'로 형성하는 기부문화 사업입니다.

현재 강남구와 능인종합사회복지관의 거점기관(복지관) 등 13곳이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로구 건강강좌 | *Health seminar at Jongno gu*



1 강연중이신 최승호 교수님(10월 28일)
2 강연중이신 최수연 교수님(11월 28일)



오아시스는 지역사회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연 2회에 걸쳐 종로구 노인복지회관에서 건강강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종로구 거주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주요 건강검진관심사에 대한 강좌를 시행하고, 강좌가 끝난 후에는 혈압측정, 혈당검사를 비롯한 간단한 건강진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혈압이 지나치게 높거나 혈당이 높게 나오신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진료상담을 해드리고 추후 지속적으로 혈압을 측정해 건강 수첩에 기록하시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어르신들이 흔히 접할 수 있는 질환을 주제로 선정하여 건강강좌가 진행되었습니다. 10월에는 겨울철로 접어들기 전 환절기 호흡기 질환 예방법과 관련하여 호흡기내과 최승호 교수님의 강의를 있었으며, 11월에는 노인들에게서 높은 유병율을 보이는 심혈관계 질환에 대해 순환기내과 최수연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 알아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일 시	강의교수	참여인원(명)	강좌명
10월 28일	최승호 교수	50	환절기 호흡기 질환 예방
11월 28일	최수연 교수	50	심혈관 질환 예방

오아시스의 2011년 다짐 | *Commitment*

오아시스는 2011년에도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위해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안산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무료진료, 영월군 순회진료, 목욕봉사는 2011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2010년도에 이루어진 안산시와 강남구를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돈독한 관계를 기반으로, 2011년도에는 보다 풍성한 봉사내용으로 이웃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특히 같은 동포인 새터민을 위한 무료진료 또한 기획되고 있으며, 이를 기회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오아시스 2011년 봉사안내

OA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GANGNAM CENTER VOLUNTEERS

날 짜	내 용	장 소
1월 9일(일)	외국인 무료진료	안산 외국인 주민센터
2월 13일(일)	외국인 무료진료	안산 외국인 주민센터
3월 6일(일)	외국인 무료진료	안산 외국인 주민센터
3월 26일(토)	독거노인 목욕봉사	종로구 노인복지관
4월 3일(일)	외국인 무료진료	안산 외국인 주민센터
4월 22~23일(금~토)	순회무료진료	강원도 영월군
5월 1일(일)	외국인 무료진료	안산 외국인 주민센터
5월 28일(토)	독거노인 목욕봉사	종로구 노인복지관
6월 11일(토)	순회무료진료	강남구청 지정 복지관
6월 12일(일)	외국인 무료진료	안산 외국인 주민센터
7월 3일(일)	외국인 무료진료	안산 외국인 주민센터
7월 23일(토)	독거노인 목욕봉사	종로구 노인복지관
8월 7일(일)	외국인 무료진료	안산 외국인 주민센터
8월 26~27일(금~토)	순회무료진료	강원도 영월군
9월 4일(일)	외국인 무료진료	안산 외국인 주민센터
9월 24일(토)	독거노인 목욕봉사	종로구 노인복지관
10월 16일(일)	외국인 무료진료	안산 외국인 주민센터
11월 6일(일)	외국인 무료진료	안산 외국인 주민센터
11월 26일(토)	독거노인 목욕봉사	종로구 노인복지관
12월 4일(일)	외국인 무료진료	안산 외국인 주민센터

※ 2011년에도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위한 봉사활동은 계속됩니다.

2006년 오아시스 창단



2007년 첫아기는 진료, 의료 사회봉사 시작



2008년 독거 노인을 위한 목욕봉사 시작



2009년 의료소외계층을 위한 조기진단서비스



2010년 예방의학서비스 제공시작



2011년 오아시스는?



도움을 주신 분들 | Supporters

진료지원 해주신 분들(12개 단체)

안산시, 안산외국인주민센터, 안산보건소,
영월군청, 영월보건소, 강남구청, 강남구보건소,
종로구청, 종로구보건소, 종로구노인복지관,
라끄리닉드 파리, 서울대학교 의대·간호대
기톨릭학생회(CaSA)

오아시스에게 보탬을 주신 분들(14개 단체 및 개인)

녹색연합, (주) 동강메디칼, (주) 아모레퍼시픽, (주) 아스트라제네카
(주)유라클, (주) 제일약품, (주) 중외제약, (주) 한국 MSD, 환경재단,
김희선, 문식, 박성호, 서춘희, 전용철

의학상담을 도와주신 분들(9명)

치과 김은숙 원장, 영상의학과 김수영 교수, 소아과 김승호 교수,
이비인후과 김종양 교수, 안과 서종모 교수, 영상의학과 오정석 교수,
전우기 교수, 내과 정성애 교수, 정재우 교수

의료통역을 도와주신 분들(34명)

강선영, 곽유리, 김나자, 김미화, 김인옥, 나혜준, 노우주, 라채린, 류나나, 리우옌, 미키, 서세일,
세부카, 섀도야, 소드농체책, 영스사롤, 영호투스, 왕림유, 은정희, 이마라, 이유경, 이인선, 이장남,
이호분, 임지민, 잠강, 정진영, 지은정, 최우영, 대동연, 통갈락, 한경천, 홍상애, 황서희

운동치료 서비스를 제공해주신 분들(6명)

김명진, 김일환, 김대희, 김혜실,
민경옥, 함상만

오아시스 활동에 함께 참여해주신 분들(64명)

강웅재, 강웅조, 강형진, 강혜숙, 권지선, 권지현, 권태오, 권호정, 김남순, 김남훈, 김도훈, 김민식, 김성윤,
김수지, 김은지, 김지민, 김찬일, 김준옥, 김태훈, 김형수, 김혜준, 김희옥, 남윤혜, 노민전, 노병욱, 노승찬,
노우현, 민세희, 박보경, 박세정, 서현기, 성호경, 손혜연, 신재우, 신호준, 안성민, 안성준, 양승두, 엄민정,
엄효정, 오혜찬, 윤성진, 이강현, 이명해, 이수환, 이영희, 이주열, 이지영, 이지환, 이진수, 이호선, 임예린,
장미란, 장윤후, 장익준, 정수은, 정예린, 정진우, 조혜민, 진성태, 진소라, 진영신, 최홍석, 표주영



2010년 순회진료 및 각종 봉사활동은 오아시스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강남센터 교직원들이 방문하기 전 일찍부터 나와 미리 장소를 준비해주시고, 진료대상자를 선정해주실 뿐 아니라 진료당일 접수를 도와주시는 지역단체 및 유관기관 직원 분들의 노고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강남센터 교직원만으로 매회 200명 이상을 진료한다는 것이 어렵지만 주말에도 개인시간을 쪼개 나와주신 여러 외부 교수님들 덕분에 정해진 시간 안에 진료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일반 진료 이외에도 라끄리닉드 파리를 비롯한 운동처방사 선생님들이 근골격계 질환을 위한 운동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의료통역사 및 의료관광코디네이터 선생님들께서 외국인 환자의 통역을 맡아 해주셨습니다. 순회진료를 시행할 때에 필요한 약품 및 의료기기를 지원해 주시는 고마운 분들도 있었습니다.

보내주시는 후원을 토대로 2011년 한해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저희 힘만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물방울처럼 작은 힘도 함께 모이면 깊고 큰 사랑의 바다를 이루듯, 많은 분들이 보내주신 사랑으로 오아시스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후원회예우 | *Preferential donor* 도움을 주실분 or 후원하실 분을 모십니다

예우내용		후원금액	5백만원 미만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	1억원 이상	3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건물벽면 회원성명 영구보존			•	•	•	•	•	•	•
디지털액자								•	•
감사장 증정			•						
감사패 증정 (5천만원 이상 흉상감사패)				•	•	•	•	•	•
만찬 초청 (발전후원의 밤)				•	•	•	•	•	•
차량출입증 교부 (무료주차)	본인 (배우자포함)			평생	평생	평생	평생	평생	평생
	직계가족			평생	평생	평생	평생	평생	평생
진료비감면 혜택 선택진료비 100% (연간 3백만원한도)	본인 (배우자포함)				3년	10년	평생	평생	평생
	직계가족					5년	10년	평생	평생
종합건강검진 (2인기준) 본인 및 배우자(1회 100만원 한도)						1년(2매)	3년(6매)	5년(10매)	평생
진료편의	외래예약·진료, 입원, 응급실, 정례식장			•	•	•	•	•	•
	의전서비스 : VIP실 이용, 개인별 에스코트					•	•	•	•
	차량편의 (구급차, 승용차)							•	•
병원 간행물 발송			•	•	•	•	•	•	•
병원 기념품 제공				•	•	•	•	•	•
기관장 초청간담회							•	•	•

※ 법인 또는 단체는 대표자(배우자)에게 예우

● 후원회원이 되시려면

- 01_ 우리모두가 후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 02_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원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후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 03_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04_ 어떠한 형태로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 05_ 후원금은 현금, 주식, 기타 자산이나 의료기기, 부동산, 귀중품 등 어떠한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관심도 좋은 후원이 됩니다.
- 06_ 후원금에 대해서는 세금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07_ 후원금 전액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에 의거하여 세금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08_ 서울대학교병원은 법정 기부금, 지정기부금 지정기관입니다.
- 09_ 소득공제를 위한 기부금 영수증을 우송해 드립니다.

※ 후원금은 우선 약정하시고 추후 납입하셔도 됩니다.

● 후원방법 및 기타문의 사항

TEL | 02-2112-5700 FAX | 02-2112-5635 URL | <http://healthcare.snuh.org> E-mail | healthcare@snuh.org

강남센터의 얼굴들 | Gangnam center volunteers

소외된 이웃에게
인생을 전하는
오아시스 봉사단의 열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신한수

저절로 가슴이 따뜻해짐
행복한 우리 마음
강남센터 오아시스 봉사단 여러분들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민

너희 힘이 사랑 앞에 머지않아 하여
너희 평화를 보고 하늘이
영광을 우리에게 하라. 신진화
빛나는 오아시스를 위해...

최신화 있는 기쁨을
양해 해주는 곳이 있어.
저에게 많은 도움과 격려를
아낌없이 주셨다. 많은 도움과 격려를
오아시스가 꼭꼭 변신해
나를 바래줄~
오아시스 하미영!! 이명진

리틀이 함께 하는 삶
오아시스, 동행, 울자 토크
가볍게 있는 생활을 위해
오아시스가 완장 씌었다. -곽재수-

묵묵히 오아시스 활동에 동참 해주는
동행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더욱 많이 참여할 수 있는 2011년도가
되길 바랍니다.
한상화님께 반갑게 오아시스가 되길... -이민희-

처음 오아시스 봉사단의 시작은
'작은 나비의 꿀꺽지렁이'에 참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감동의 여정을
물고 을 거라 믿습니다. -임정은-

저 여사님 한 수 있들
늘 도와주시는 동행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늘로로로 여사님 하미영입니다 -이명진-

작은 사랑으로 큰 기쁨을 얻는
오아시스! 사랑합니다. -강신복-

시작은 힘들었지만, 함께하는 기쁨을
감내해주는 우리 "Oasis"! 사랑합니다. -김은수-

아는 만큼 보이고, 행동하는 만큼 얻는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항상 즐거움과 희망을 주는
강남센터 오아시스 존경스런 사랑합니다.
이희룡보영 김은수

의료분야를 알게 되면서
제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낍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소중한 삶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모든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한지원-

나눔은 외행복은 공인시기도
대현

타인을 위한 나눔이 아닌 나를 위한 나눔임을 배웠습니다. -김지현-

슈퍼리치나, 이태백 선생님같이 타지에서 봉사하지 못하고 있지만,
현재 처한 상황과 환경에서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박준호-

모두 함께 행복해지는 시간입니다. 이명진

봉사를 통해서 오히려 내가 도움을 받은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각각의 세상에서 정서적 풍요로 마음의 평화를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소희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HEALTHCARE SYSTEM



135-984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7 강남파이낸스 센터(구.스타타워) 38, 39, 40층
TEL 02,2112,5700 | FAX 02,2112,5635